

연구논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정미란 · 임소연 · 안옥희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n the Utilization of Apartment
Balcony in Economically Sized Housings

Mi-Ran Jung, So-Yeon Lim and Ok-Hee An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urrent problems of using balcony in apartment. For this study, 255 subjects who are resided in economically sized apartment housings were select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

- 1) The front balcony was used as arrangement space a laundry drier and a flowerpot table. On the other hand, the rear balcony was used as storage space for a kind of washing powder and receptacle, kim-chi jar and storage container for food etc.
- 2) The most dissatisfaction respect on the balcony is the width of space.
- 3) The shelves were often used as storage facilities.

Key Words : economically sized housing, apartment, balcony

I . 연구목적

아파트의 내부는 대체로 안방, 거실, 욕실, 식당과 부엌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와 다용도실이 부가된다. 집합주거에서 발코니를 부가한 것은 오늘날 이미 널리 인식되어진 하나의 요구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발코니는 생활연장 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곳은 이용자적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김지향, 199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있어서 서비스공간은 거주자들의 실생활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교과서의 계획각론적인 치수만을 적용하

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박도규, 1995).

또한 우리 나라의 발코니공간은 서구와 달리 하나의 실내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특히,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생활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하므로 서비스공간인 발코니의 활용과 인식이 큰 규모의 아파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김수양, 1998). 그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경우 발코니는 주로 가사공간의 연장과 수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간의 효율성과 미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발코니공간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발코

니 공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함에 목적
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발코니의 개념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용어는 흔히 혼용되고 있는데, 베란다와 발코니의 기능적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베란다는 보통 정원에 면하고 있으며 휴식, 낭랑(納涼), 일광욕 등에 쓰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김평탁, 1994), 발코니의 사전적 정의는 전물의 외벽에서 돌출하여 실내생활의 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외의 바닥이다(신현식 외, 1991). 즉 베란다는 1층에 면하여 있고, 발코니는 2층 이상에 면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한 방법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하여,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우리 나라 아파트의 전면과 후면에 발코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김지향, 1992). 전면발코니의 경우 전물의 앞에 위치함으로써 앞마당의 의미를 가지고 후면발코니의 경우 다용도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우리나라 전통의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공간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정원이나 마당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 외기와 면할 수 있는 인접공간이며 반외부적 공간으로 외부와 접하려는 인간욕구를 수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장상수, 1991).

아파트 주거에서 인간에게 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한계를 짓는 물리적 시설물은 발코니의 난간이며 영역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발코니이다. 그러므로 발코니는 서비스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심리적인 영역 소유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성적 구획방법과 충

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박영선, 1983).

2. 발코니공간의 기능 및 이용

우리 나라에서의 발코니공간은 자연친화적이고 생활의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이나 마당의 의미가 강하다. 마당공간을 생활과 건축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① 통로를 위한 마당, ②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마당, ③ 작업·생산을 위한 마당, ④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마당, ⑤ 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마당, ⑥ 의식을 위한 마당, ⑦ 행정·공무를 위한 마당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현재 아파트 발코니의 의미와 관계 있는 기능은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공간과 정서를 조성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주거생활을 쾌적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김지향, 1992).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발코니공간의 주목적이나 의미로 쓰인 것이며 현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요즘은 발코니공간의 기능성이 강조되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여 개조·변경되고 있으며, 집합주택에서의 사적 외부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후면발코니인 다용도실의 경우 부엌의 연장선으로 쓰이기도 하며 수납 용도로서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발코니의 기능 및 공간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조백현, 1989).

첫째, 리빙기능으로 거실의 연장, 취미활동,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고, 화분·수목 등의 식재, 일광욕을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기능으로 세탁물, 첨구 등의 일광 소독을 할 수 있게 빨래 건조대를 두고, 작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특유의 식생활 문화인 김장담그기 등의 이유로 인해 장독대 등과 같은 잡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에서의 발코니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통가옥에 비해 훨씬 동선이 짧아진 아파트 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거구성에 비교적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원의 녹음을 그리워하며 싱그러운 꽃과 수목을 관상하고 메마른 현대생활에서 잠시나마 낭만적인 감흥을 느끼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 내에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발코니는 내·외부공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면발코니는 내·외부환경의 조절 가능성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코니가 남쪽에 위치하여 햇빛을 받고 유리로 막아 바람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향, 1992).

전면발코니는 제3의 생활공간이며 사회적 공간이나 서비스 공간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교적 적은 면적 확보로 발코니는 서비스의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탁물의 건조 장소로, 장독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발코니의 용도 전용은 미관상으로 좋지 않으므로 세탁물 건조장소, 장독의 보관 장소로 옥상 등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설계사의 고려가 진행되어야 하며, 본래의 용도를 회복하여 주거 공간 내에서 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반 설비를 해야한다(장상수, 1991).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경우 가사작업의 대부분과 식사준비의 보조공간으로 후면발코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아파트에서는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이라 하는 특별한 공간을 확보해 둔 곳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입주 후 부엌에 인접한 후면발코니를 다용도실의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국민주택 규모인 25평형대 이하의 전·후면 발코니(평균 전면발코니 크기 9.831m², 평균 후면발코니 크기 7.076m²)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2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면과 후면의 발코니에 갖춰진 설비와 보유 물품, 이용실태와 만족도

를 조사하였다.

전·후면 발코니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김수양, 1998)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수정·보완하여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9년 7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관련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1>과 <표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조사대상 주부의 평균연령이 35.4세이다. 학력은 고졸이 47.8%, 대졸이 4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150-200만원이 34.8%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며, 평균 자녀 수는 1.6명으로 출산력의 감소, 결혼 후 분가 관행 등에 의해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족 주기는 맏이 미취학기로 짧은 층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주거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평수는 평균 23.81평이며, 집의 소유형태는 자가와 타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아파트 설립년수는 평균 5.87년이며, 거주년수는 평균 3.4년이다.

2. 생활행위에 따른 발코니의 이용

생활행위를 의·식·주생활 관련 행위로 분류하여 각 생활행위가 발코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의생활 관련 행위 중에서 손세탁 행위시 후면발코니(48.3%)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세탁물 건조 장소로는 전면발코니의 이용률이 86.9%로 나타났다. 빨래삶기와 재봉·다림질 행위는 발코니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행위는 주로 부엌과 방 등의 내부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항 목	N (%)	변인	항 목	N (%)
주 부 연령	20대	82 (32.0)	주 부 학력	국졸	2 (0.9)
	30대	119 (46.5)		중졸	22 (8.6)
	40대	39 (15.2)		고졸	122 (47.8)
	50대	16 (6.3)		대학 이상	109 (42.7)
평균		35.4 세			
월수입	100만원 이하	9 (3.6)	가족 주기	신혼기	47 (18.8)
	100~150만원	79 (31.2)		만이미취학기	69 (27.6)
	150~200만원	88 (34.8)		초등교육기	53 (21.2)
	200~250만원	62 (24.5)		중등교육기	36 (14.4)
	250만원 이상	15 (5.9)		자녀성인기	42 (16.8)
평균		3.6 명		노년기	3 (1.2)
가족수	2인 이하	44 (17.2)	자녀수	무자녀	49 (19.1)
	3인	65 (25.4)		1명	69 (27.0)
	4인	87 (34.0)		2명	93 (36.3)
	5인 이상	60 (23.4)		3명 이상	45 (17.7)
평균		3.6 명	평균		1.6 명

* 각 빈도별 빈도의 수치가 다른 것은 결측치에 의한 차이임. 이하 모든 표에 적용됨

〈표 2〉 주거관련 특성

변인	항 목	N (%)
소유 형태	자가	139 (54.7)
	타가	115 (45.3)
평수	5층 이하	106 (41.4)
	6층 이상	150 (58.6)
	20평	7 (2.8)
	21평	22 (8.7)
	22평	18 (7.1)
	24평	124 (48.8)
설립 년수	25평	83 (32.7)
	평균	23.81 평
거주 기간	1~3년	29 (25.4)
	4~6년	42 (36.8)
	7~9년	25 (21.9)
	10년 이상	18 (15.8)
	평균	5.87 년
거주 기간	1년 미만	58 (22.7)
	1~2년 미만	59 (23.0)
	2~3년 미만	46 (18.0)
	3~4년 미만	28 (10.9)
	4년 이상	65 (25.4)
평균		3.4 년

식생활 관련의 행위는 부엌공간이 독립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대부분 발코니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후면발코니의 이용도가 전면발코니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 관련 행위 중 비일상용품을 수납하는 장소로는 후면발코니 이용률이 51.7%로 나타났으며, 휴식 행위시 발코니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49.4%로 가장 높았지만 전·후면발코니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이 5할을 넘고 있어 휴식의 장소로서 발코니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초 기르기는 조사대상자의 81.4%가 빛의 유입 조건이 좋은 전면발코니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다.

3. 가사물품의 배치장소

가사물품을 배치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냉장고의 경우 대부분 부엌에 설치를 하여서 발코니에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93.2%로 높았다. 그러나 장독은 전면 32.9%, 후면 41.6%로 발코니 이용비율이 높으며 (74.5%), 발코니 위치에 따른 이용정도는 후면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표 3 〉 생활행위에 따른 베란다 공간의 이용도

행위	공간	전 면	후 면	이용안함
의생활 관련 행위	손세탁	56 (23.2)	117 (48.3)	69 (28.5)
	세탁물건조	199 (86.9)	22 (9.5)	8 (3.5)
	빨래삶기	10 (4.0)	33 (13.3)	206 (82.7)
	재봉·다림질	8 (3.3)	7 (2.9)	227 (93.8)
식생활 관련 행위	냄새심한요리	10 (4.0)	45 (18.0)	195 (78.0)
	장시간요리	12 (4.8)	38 (15.2)	200 (80.0)
	김치만들기	51 (20.1)	45 (17.7)	158 (62.2)
	채소손질	29 (11.6)	63 (25.2)	158 (63.2)
주생활 관련 행위	비일상용품 수납	81 (32.9)	127 (51.7)	38 (15.4)
	휴식	117 (46.6)	10 (4.0)	124 (49.4)
	부엌에서 못 셋는 것 셋기	59 (23.4)	76 (30.2)	127 (46.4)
	화초 기르기	201 (81.4)	11 (4.4)	35 (14.2)

〈 표 4 〉 가사물품의 배치장소

물 품	배치장소	N (%)	물 품	배치장소	N (%)
냉장고	전면	3 (1.2)	세탁건조대	전면	192 (75.3)
	후면	12 (4.8)		후면	28 (11.0)
	양쪽	2 (0.8)		양쪽	23 (9.0)
	이용안함	233 (93.2)		이용안함	12 (4.7)
장독	전면	84 (32.9)	세탁용기	전면	46 (18.2)
	후면	106 (41.6)		후면	172 (68.0)
	양쪽	1 (0.4)		양쪽	1 (0.4)
	이용안함	64 (25.1)		이용안함	34 (13.4)
김치독	전면	40 (15.7)	화분설치대	전면	201 (80.1)
	후면	141 (55.3)		후면	4 (1.6)
	양쪽	0 (0.0)		양쪽	4 (1.6)
	이용안함	74 (29.0)		이용안함	42 (16.7)
식품저장통	전면	20 (7.9)	쓰레기분리	전면	9 (3.6)
	후면	175 (69.4)		후면	166 (66.4)
	양쪽	1 (0.4)		양쪽	2 (0.8)
	이용안함	56 (22.2)		이용안함	73 (29.2)
세탁기	전면	37 (14.6)	단독보일러	전면	8 (3.3)
	후면	177 (70.0)		후면	188 (76.7)
	양쪽	0 (0.0)		양쪽	0 (0.0)
	이용안함	39 (15.4)		이용안함	49 (20.0)

코니가 약간 높았다. 김치독의 경우도 55.3%가 빛이 덜 드는 후면발코니에 두어 전체 발코니 이용비율(71.0%)은 장독과 비슷하나 후면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김치류는 6~8℃ 정도의 일정온도를 유지하여야 신선한 김치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일조량이 적고 부엌과 연결된 후면발코니에 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저장통은 부엌과 가까운 후면발코니에 두는 경우가 69.4%로 많았다.

세탁기의 경우 70%가 후면발코니에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탁용기 및 세제류도 조사대상자의 68%가 후면발코니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탁건조대는 75.3%가 전면발코니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햇볕건조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세탁의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분설치대는 80.1%가 전면발코니를 이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함은 후면발코니에 66.4%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단독보일러는 아파트의 건축시 일반적으로 주택의 전면부를 피하므로 후면발코니에 76.7% 정도 배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세탁관련 물품의 발코니 이용비율은 매우 높으며, 전면발코니는 일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조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관여하여 화분설치대와 세탁건조대를 많이 배치해두고 있는 반면에 후면발코니는 저장이나 설치형 물품의 배치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소영(1988)의 연구결과에서도 전면발코니공간에 세탁건조대, 화분설치대 등의 물품이 가장 많이 보유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아파트 발코니는 대부분 물품배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조량과 관계가 있는 물품은 단독주택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전면발코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발코니공간의 만족도

발코니공간 이용시 만족도에 대해서 5점 Likert 조사를 한 결과〈표 5〉, 전반적으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폭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변인에 비해서 낮게 평가(2.93점)되었다. 이는 발코니의 폭이 좁아 불편하므로 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영선, 1984)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표 5〉 발코니공간의 만족도

변인	평균 (SD)
전체크기	3.19 ($\pm .76$)
길이	3.24 ($\pm .69$)
폭	2.93 ($\pm .78$)
위치	3.37 ($\pm .75$)
재료	3.09 ($\pm .68$)

5. 발코니공간의 보조시설물의 설치 및 개조실태

발코니공간에 있어서 수납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납 보조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표 6〉, 선반과 창고를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선반은 후면발코니, 창고는 전면발코니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의 아파트에서는 시렁, 반침, 다틱 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직 주생활 공간을 넓게 쓰고자 하는 욕구로 수납공간을 축소하다보니 순수한 수납공간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공간인 발코니를 유리로 막아 창고나 선반을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권영미, 1982)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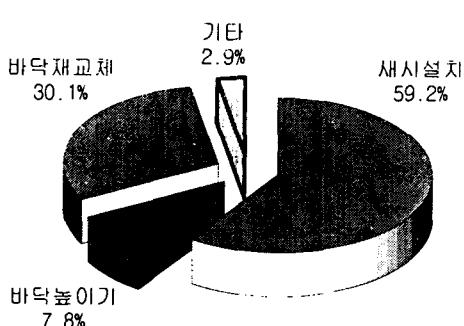
발코니공간의 개조한 내용과 개조희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과반수 이상이 새시설치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닥재 교체→바닥높이기→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발코니공간에 새시를 설치하여 유리문을 달는 것은 공간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거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발코니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여부(그림 2)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63%가 개조를 원하고 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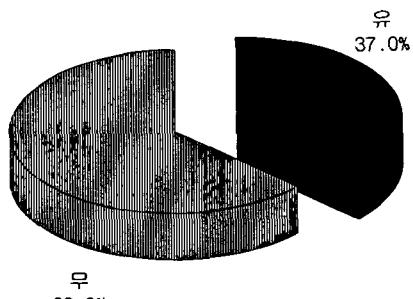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표 6〉 보조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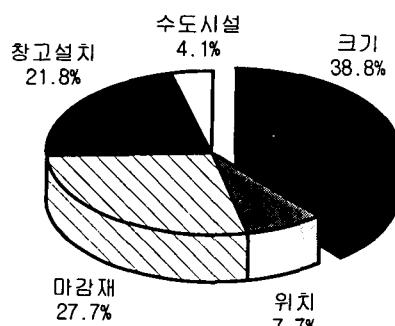
시설물	공간	N (%)		
		전면발코니	후면발코니	양쪽면발코니
선반	44 (17.6)	125 (50.0)	37 (14.8)	44 (17.6)
씽크대	5 (2.1)	36 (14.9)	1 (0.4)	199 (82.6)
창고	116 (46.4)	71 (28.4)	15 (6.0)	48 (19.2)
이동식 가구	64 (26.8)	12 (5.0)	1 (0.4)	162 (67.8)



(그림 1) 개조한 내용



(그림 2) 개조희망 유무



(그림 3) 희망개조 사항

았으며,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주부들의 38.8%가 발코니 공간의 크기 확장을 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마감재의 교체(27.2%)→창고설치(21.8%) 등의 순으로 개조를 희망하고 있어 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V. 결 론

우리 나라 아파트의 발코니는 생활기능 및 서비스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실내정원 및 거실을 연장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코니를 유리로 막아 완전한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설계시와는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민주택규모인 25평형 이하 아파트에서의 발코니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행위에 따른 발코니 공간의 이용실태는 의생활의 경우 세탁물 건조시에만 전면발코니를 이용하였으며 손세탁이나 세탁기 이용시에는 후면발코니에서 그 행위가 대부분 행해지고 있었다. 식생활의 경우는 부엌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어져 있었으므로 발코니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주생활 행위의 경우는 비일상용품을 보관할 경우에 후면발코니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화초 기르기는 전면발코니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생활행위 측면에서 보면 발코니는 의생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세탁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후면발코니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세탁작업과의 동선을 짧게 연결시켜줄 수 있으며 전면발코니의 세탁건조장소로서의 용도를 휴식공간의 용도로

전환시켜 거주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물품배치장소는 화분설치대와 세탁건조대는 전면발코니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세탁용기 및 세제류, 김치독, 식품저장통, 쓰레기 분리함, 세탁기, 단독보일러는 후면발코니에 많이 배치해두었다. 아파트에서의 세탁물 건조는 마당과 가장 비슷하게 햇빛을 잘 받는 유일한 공간인 발코니에서 행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염대건, 1989).

외국의 경우 기계화된 공동세탁장이나 건조실이 있어 발코니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아파트 외부미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으로 발코니를 완전히 옥외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며, 특히 실내공간면적이 좁은 아파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발코니의 허리벽 아래 부분은 시선차단을 위하여 음영유리를 사용하거나 시선차단용 필터를 부착하고, 허리벽 위 부분은 채광을 위하여 투명유리를 사용하는 등의 절충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발코니공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으나, 발코니공간의 폭에 대해서는 불만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탁건조대를 설치하였을 경우 그 불만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발코니공간에서의 세탁건조 기능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발코니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시설물은 선반과 창고와 같은 수납목적의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수납기능을 위한 시설물은 일조량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분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발코니공간에 기존의 수납창고 이외의 또 다른 창고나 수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발코니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되며 내부외관을 손상시키기 주생활의 무질서를 초래하기 쉽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체계적인 수납공간이 없으므로 각 실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용도 실이나 발코니에 수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와 같은 소규모 아파트의 주거공간에 있어서

부엌을 비롯한 각 실공간에서의 수납공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의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공간은 크지 않으므로 발코니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나 여러 용도로의 공간활용과 미적 변형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발코니공간은 앞으로 다양한 생활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생활행위의 장(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감성공학적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겠다.

참 고 문 헌

- 권영미, 1982, 한국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 성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양, 1988, 아파트 후면베란다의 이용실 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 15호 pp. 86-92.
- 김지향, 1992, 아파트 발코니공간에 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탁, 1994,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박도규, 1995, 아파트 발코니공간 전용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언곤, 1986, 한국건축사 강좌, 문운당.
- 박영선, 1983, 아파트 발코니의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1985, 아파트 서비스 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식 외, 1991, 건축대사전, 대우출판사.
- 염대건, 1989, 아파트 발코니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상수, 1991, 아파트 건축의 소규모 단위 평면상의 나타난 서비스 공간의 구성적 특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백현, 1989,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계획과 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amuel Paul, 1975, "Apartment", Design and Development, Reinhold Book Co..